

내일 볼리비아전 '젊은피' 시험장...세대교체 가속화

평균연령 25.4세 아시안컵보다 2세 ↓...이강인·백승호 가세로 기대



볼리비아와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이강인(왼쪽)과 백승호가 19일 오후 경기 파주시 NFC(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시안컵 실패를 딛고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하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세대교체의 칼을 꺼냈다. FIFA 랭킹 60위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2일 울산문수구장에서 볼리비아와 맞붙는다. 역대 두 차례 A매치에서 모두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한 상대다.

한국은 지난 1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 카타르와 경기 이후 처음으로 A매치를 치른다. 이 대회에서 59년 만에 아시아 무대 정상 탈환을 노렸지만 카타르의 일격에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아시안컵의 실패를 딛고 2022년 월드컵을 시선을 돌렸다. 어린 선수들을 대거 발탁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친선경기에 포함된 선수 27명의 평균 나이는 25.4세로, 지난해 러시아월드컵의 평균 연령(27.8세)보다 낮아졌고 아시안컵 평균 연령(27.5세)보다도

2세 이상 떨어졌다.

젊은 선수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포지션은 미드필더다.

기성용(30·뉴캐슬) 구자철(29·아우크스부르크) 등 지난 10년간 한국 중원을 책임진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그 자리에 젊은피가 수혈되면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가장 기대를 불러모으는 선수는 이강인(발렌시아)이다. 2011년 생으로 만 18세20일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성인 국가대표 발탁 7위에 올랐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한국선수 가운데 1부리그(스페인 프리메리가) 무대를 가장 어린 나이에 소화한 선수다.

벤투 감독이 직접 스페인 발렌시아로 가 그의 경기를 관전하고 면담을 했을 정도로 기대가 크다.

한국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치고 스페인 프리메리가 지로나 FC에서 인지를 다지고 있는 백승호(22) 또한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리그경기에서 특유의 공 간수 능력을 보여줘 팬들의 기대가 크다.

여기에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MLS)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황인범(23)도 빈 중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FC리퍼링의 김진민(20)도 세대교체 후보군이다.

공격적으로는 나상호(23·FC도쿄)가 들어왔다. 아시안컵서 부상 낙마한 그는 이번에는 기회를 부여받을 전망이다.

수비진과 골키퍼에도 젊은피가 수혈됐다. 이미 주축 수비수인 김민재(23·베이징 궈안)를 필두로 정승현(26·가시마 앤티러스), 박지수(26·광저우 헝다), 김문환(24·부산) 등 젊은 선수들이 즐비하다.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베테랑 수문장 김진현(32·세레소 오사카)이 빠진 자리에는 구성운(25·콘사돌레 샤프로)이 들어왔다.

이들을 직접 선발한 벤투 감독은 젊은 선수 기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나이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실력이 있는 선수는 나이를 크게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IFA 랭킹이 높은 콜롬비아(12위)보다는 상대적 약체인 볼리비아전에서 어린 선수들이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선수들도 기회를 잡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이강인은 19일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쟁하러라도 기회가 오면 팀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라고 했다.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어필'도 잊지 않았다.

백승호 또한 "패스나 볼 간수가 내 강점이다. 프로로서 여유나 불타치 등에 대해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저도 많이 노력해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실력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화 한용덕 감독 "이용규 문제, 구단 처분 기다려야"

"포지션 중복 속제 해결했다 생각했는데 차질"

"그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용덕 한화 이글스 감독이 외야수 이용규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 감독은 1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용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 얘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한화의 베테랑 외야수 이용규는 최근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하는 '발발행동'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용규는 지난 1월 구단과 계약 기간 2+1년, 최대 28억원에 FA 계약을 했다. 이런 베테랑 선수가 개막을 불과 1주여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레 트레이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 감독은 "구단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는 16일 이용규에게 육성군행을 통보했다. 당시 "내부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화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하려고 한다. 구단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와 이용규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갑작스런 이용규의 이탈로 한용덕 감독의 시즌 구상도 틀어졌다.

한 감독은 "캠프 때부터 포지션 중복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속제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차질이 생겼다"며 "여러 선수가 잘



이용규

해줘야 한다. 시즌 준비를 잘 해왔으니 그것만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

FC서울 출신 안델손 "한국행 후회...J리그가 훨씬 더 뛰어나"

프로축구 FC서울 출신 안델손 로페스(콘사돌레 샤프로)가 한국 축구를 '수준 낮은 리그'라고 비판했다.

안델손은 18일(한국시간) 스포츠매체 ESPN 브라질판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틀렸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오로지 내 플레이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한국에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위에서 날 도와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기술적인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일본 프로축구 J리그(1부리그) 산프레체 히로시마

2018시즌 앞두고 서울 이적 K리그서 31경기 7골 부진 "한국은 오로지 많이 뛰고 공을 앞으로 차는 것 밖에 없어"

"한국과 일본의 축구는 매우 다르다"고 운을 떼 그는 "한국에선 기본적으로 힘을 필요로 한다. 한국 선수들은 오직 많이 뛰고 공을 앞으로 차는 걸 반복할 뿐"이라며 "일본은 전술과 기술이 더욱 중요하다. 훨씬 뛰어난 리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안다. 어떤 사람들은 귀화해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노리려고도 한다. 가능하면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일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으로 이적, 두 시즌 동안 44경기 12골을 기록했다.

2018시즌을 앞두고 서울로 이적했지만 컵 대회를 포함해 31경기에서 7골을 터뜨리는 데 그쳤다. 주장 고요한과 그라운드에서 충돌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최용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로는 출전명단에 서 제외되는 일도 잦았다.

이후 올 시즌 다시 일본 J리그 샤프로로 복귀, 3라운드 시미즈 S필스와 경기서 4골을 터뜨리는 등 5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FIFA, 2023년 여자월드컵 남북공동유치 의향서 전달

대한축구협회(KFA)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2023년 여자월드컵 대회 유치의향서를 냈다.

FIFA는 19일(한국시간) "9개국 축구협회가 2023년 열릴 여자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여자월드컵 유치의향서 접수 마감일은 15일이었다.

9개국 가운데 한국도 포함됐다. FIFA는 "KFA는 북한축구협회와 공동 입찰에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FIFA에 따르면 남북 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일본,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축구협회가 유치의향서를 접수했다.

FIFA는 "1991년 대회가 시작된 이후 9개국이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것은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공식적인 유치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다음달 16일이다. 유치를 신청한 국가들은 10월4일까지 관련 서류와 날이 된 개최협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최지는 2020년 3월 결정될 예정이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Natural Hidden Treasure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곡, 화현사, 선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